

사회

■ 르포 - 조류주의보 '광주·전남 식수원' 동북호·주암호

“증식 막아라” 녹색 물에 황토 살포

24일 오후 2시 화순군 동북면 동북호. 140만 광주시민이 사용하는 수돗물의 60%(일 평균 27만)를 공급하는 동북호는 녹조현상으로 취수장이 있는 하류는 물론 중류, 상류까지 녹색 물감을 풀어놓은 것처럼 연둑빛으로 변해 있었다. 황토를 실은 6급 선박이 지난 자리는 황토색으로 변했다가 이내 연둑빛으로 되돌아갔다.



24일 조류주의보가 발령된 동북호에서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들이 황토 살포작업을 벌이고 있다. 작업은 6급 배 끝부분에 흰색 포대를 벌려놓고 그 안에 황토를 넣어 물에 부어 황토물이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동북호와 주암호 수질 검사 결과 2주 연속 조류주의보 발령 기준(클로로필-a 농도 15mg/m³, 남조류 500개/ml)보다 높은 수치가 나타나자, 지난 21일 2곳에 조류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14일 동북호 수질 검사결과 녹조의 원인인 클로로필-a의 농도와 남조류 세포 수가 각각 m³당 29.8mg, ml당 1만8천760개로 나타난 데 이어, 19일에는 각각 m³당 21.6mg, ml당 1만385개로 나타나 조류주의보 발령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은 데 따른 것이다.

댐 전지역 확산... 황토 효과는 “글썸”

녹조 시기 빨라 심각한 상태 올수도

담기간 지속되고, 상태도 심각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조류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녹조현상이 관측되면 일 반적으로 물에서 곰팡이 냄새가 난다고 전했다. 또 남조류가 생산하는 독소가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가 수면으로부터 5m 이내에 집중 서식하는 것을 감안해 수심 16m 아래서 취수를 하고 있다. 주암호도 이날 하류에 황토 0.25t을 살포하는 등 조류주의보 발령 전후로 총 1.25t의 황토를 살포했다. 또 5급 조류제거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조류제거 활동을 펴고 있다.

는 미흡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영산강물환경 연구소 관계자는 “조류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소량의 황토살포는 상징적 효과에 그칠 뿐”이라며 “계다가 황토살포가 조류증식을 막는다는 입증된 자료도 현재 없는 상태이며, 일조량 등에 따라 조류는 수심 깊이 내려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황토의 조류제거 효과가 입증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류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황산등을 살포하면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가 있어 살포를 고심중”이라며 “현재로서는 수돗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조류 상태를 지켜보며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북호와 주암호에 내려진 조류주의보는 각각 지난 2007년 8월, 2007년 10월 이후 처음 발령된 것이다. 영산강환경청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플랑크톤 증식에 영향을 주는 질소, 인 등 영양염류가 많이 유입된데 기온이 높아 조류가 왕성하게 증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통상 태풍이 나간 가을에 조류 주의보가 발령된 것과는 달리 올해는 그 시기가 앞당겨졌다”며 “녹조현상이 상

국세청장 비난 前 세무서 직원 ‘무혐의’

남부경찰, 처벌근거 부족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파면된 뒤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세무서 전 직원이 경찰에 의해 무혐의 처

분을 받았다. 광주남부경찰은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나주 세무서 직원 김모(47)씨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한 전

청장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피해 사실을 입증할만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처벌근거가 부족, 혐의적용이 어려운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한 전 청장의 잘못된 행위를 비판했을 뿐 국세청과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8일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한 전 청장의 책

임이 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 이유 등을 밝히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지난달 12일 파면됐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이어 같은 달 16일 국세청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으며, 김씨도 파면 조치가 부당하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파면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행정안전부에 청구했다.

소년원생들 탈주극

어제 광주서 5명 ... 20여분만에 붙잡혀

광주에서 소년원생들이 집단 이탈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4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0분께 광산구 일곡동 고령정보산업학교(이하 광주소년원) 원생 윤모(16)군 2명이 교내에서 빨래를 널던 중 갑자기 이탈, 20여 분만에 인근 버스 승강장 등에서 교직원들에 의해 붙잡혔다. 윤군 등과 함께 이탈하려 한 나머지 원생 3명은 교직원들에 의해 제지돼 미수에 그쳤다. 윤군 등은 5명은 지난 17일 강도상해와 절도 등의 혐의로 판결을 받은 뒤 입교했다.

소년원측은 이들이 당초 입소기간을 1개월 이내로 예상하고 있었으나, 예상과 달리 1년 이상 소년원에 머물러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우발적으로 이탈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소년원 측은 또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오인 신고다. 60시간 이내에는 우리에게 수사권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원생들이 이탈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진상조사를 내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원룸 노린 ‘광주판 발바리’ 구속

상습 절도 30대도 검거

수개월에 걸쳐 여성들이 사는 원룸 등에 침입, 수 십차례 성폭행과 강도 행각을 벌인 ‘광주판 발바리’와 ‘원룸 전문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24일 김모(28)씨에 대해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광주시 화정동 W원룸에 혼자 사는 K(여·26)씨의 방에 잠금장치가 열린 창문을 열고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현금 등을 빼앗아 도망가는 등 최근까지 26회에 걸쳐 시가 5천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지난 5월 13일 만기 출

소한 김씨는 여성 홀로 사는 원룸 등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훔친 휴대전화로 알뜰 사진을 찍은 뒤 “신고하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경찰도 이날 밤 원룸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톤 송모(30)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6월 동구 지산동 B원룸에 사는 김모(30)씨의 방에 침입, 귀금속을 몰래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 21회에 걸쳐 시가 2천7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나원침 (7891) 김장두



‘줄기세포’ 황우석 4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특별수사팀은 24일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한 연구자의 올바른 연구 태도와 과욕 때문에 실험 데이터와 논문은 조작하고, 연구비를 편취·횡령한 공소사실이 43회에 걸친 공판을 통해 입증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날치기 10대들 카드 사용하다 ‘덜미’

○-용돈을 마련하려고 상습 날치기를 한 철부지 10대 4명이 훔친 신용카드를 현금지급기에서 사용하다 경찰에 덜미. ○-광주동부경찰은 24일 심야에 오토바이를 이용, 홀로 귀가 중인 부녀자를 상대로 날치기를 한 광주 모교 J군(17) 등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J군 등은 지난달 4일 새벽 광주시 농성동 A병원 인근 골목길에서 새벽기도를 가던 L(여·67)씨의 손가방을 낚아채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8회에 걸쳐 날치기를 한 혐의. ○-동네 친구 사이인 이들은 경찰에서 “가출 후 생활비가 떨어지자 범행을 모의했다”고 진술.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에 북한이탈주민 적응센터 문 연다

광주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가 문을 연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8일 개소식을 갖는 이 센터는 통일부로부터 매년 1억4천만원 가량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지역 내 354명의 북한 이주민에 대한 취업훈련, 심리상담, 정착지원 등을 본격 시행한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는 경기도와 서울, 대구에만 설치돼 있으며, 올 하반기 광주와

대전에 설치될 예정이다. 북한 이주민 지역 적응센터는 광주시 서구 치평동 북한이주민지원센터와 같은 사무실을 쓰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북한 이주민들이 지역 정서를 잘 몰라 초기에 적응을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해 적응센터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소식에는 통일부 차관,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YHB (Young Home Bank) featuring a car and text about financing and services.

Advertisement for '아이엘리시아' (Aeliasia)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ext about beauty services.